

군산시-시의회, 청렴도 제고 맞손

작년 청렴도 최하위 등급 반성...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행정 구현 동참 의지 표명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9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렴한 지방행정 실현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모두 5등급(최하위)을 받은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면적인 청렴 개선과제를 실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양 기관의 주요 간부진이 참석했으며, 부정청탁·감질 등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약서를 교환하며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정기적인 청렴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부정청탁·권한남용·감질 등 부당행위 예방, 청렴 취약분야 개선, 청렴 위반행위에 대한 안전한 신고체계 운영 및 신고자 보호, 청렴도 평가결과 공



동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반기별 1회 이상 청렴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필요 시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약사항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지적되었던 인사 및 보조금 등 중점 개선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임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군산시의 자성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며,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와 의회가 진정성 있게

협력하여 청렴한 군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우민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은 단순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군산시의회는 앞으로 군산시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천 가능한 협력 구조를 담고 있으며,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함께 청렴의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역사회에 천명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폭염 대응에 행정력 집중

그늘막 설치·살수차 운영·주요 지점에 생수 비치 등 '시민 안전 최우선'... 폭염 민감 대상 예찰·보호 총력

익산시가 지속되는 폭염상황에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익산 지역은 지난 7일부터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계속되거나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3개 반 52명으로 구성된 '폭염 대응 특별팀(TF)'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무더위 쉼터 50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173개의 그늘막을 주요 교차로에 설치했다.

시는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 중이며, 폭염 대책 기간인 오는 9월 말까지 주 1회 이상 무더위 쉼터를 방문 점검하고 추가 지정을 검토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 28곳에 오전·오후 1회씩 대형 얼음과 생수를 비치해 시민들이 시원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폭염 경보 발효 시 주요 간선도로 35km 구간에 살수차 4대를 운영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시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인 등 폭염 민감 대상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 인명피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이장, 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등으로 구성된 1,700여 명의 재난도우미가 지역 내 폭염 민감 대상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 생활지원사는 취약노인 4,1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방문 1회, 전화 1회 이상 운영으로 건강을 살피고 있다. 대상자 중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유선으로 추가적인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장 책임제' 운영을 강화해 읍면동장이 직접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상황과 건강 상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협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건설현장 105개소의 온열질환 예방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폭염이 심한 경우 야외 작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재난문자와 마을 방송을 통한 행동요령 안내 등 예방 중심의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행정 역량을 집중해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기재부 심의 대응 나서

김영민 부시장, 기재부 예산심의 대응 위해 행정역량 집중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이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군산시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하여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김 부시장은 기재부 기후환경예산과 등 소관부서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군산시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군산시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지

인프라 확충으로 녹색 복지환경을 제공하는 '군산철길숲(도시바람길숲) 확대 조성사업'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 기반 시설 부족으로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노후 상수관 망 정비를 통한 수질 신뢰도 확보를 위한 '나온1·2구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이다.

한편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이달부터



기재부 심의 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항만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군산항 명칭 반영 건의안 채택

서은식 의원 대표 발의... "명칭을 군산항으로 변경해야"

군산시의회가 9일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항만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군산항 명칭 반영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은식(나선거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해양수산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새로운 국가관리

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명칭을 '군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을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항 지정과 관련해 현재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항만법 시행령 제3조 2항의 국가관리무역항 구분에서 126년 역

사를 가진 군산항의 이름을 더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항만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군산항을 새만금항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철회하고, 군산항의 이름을 존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다이어وم 밥차'로 취약계층 건강 챙긴다

익산시-하림 자원봉사단 등, 삼계탕 조리해 든든한 한끼 나눔

익산시가 지역사회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한 끼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9일 이리중앙교회에서 올해 상반기 마지막 '다이어움 밥차'를 운영했다. 이날 다이어움 밥차는 ㈜하림과 하림 자원봉사단을 비롯한 지역 곳곳의 따뜻한 손길이 더해져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주)하림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주)하림에서 생산된 삼계탕과 치킨류 등을 정성껏 조리하고, 배식 활동에 참여했다. 이리중앙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용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부승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 안내와 질서 유지를 맡아 밥차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고,

각 가정에 가져갈 수 있도록 과일갑과 부식품 등을 지원했다.

다이어움 밥차는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공동체 회복과 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익산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이다.

밥차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성금·물품 기부 등 지역의 후원으로 이뤄지며, 매주 수요일 결식 우려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날 상반기 운영을 마치고 두 달간 재정비 기간을 가진 후 오는 9월부터 하반기 밥차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주)하림은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다이어움 밥차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국립군산대·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협약 맺어

국립군산대학교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9일 스마트 선박 및 조선 해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 기획처장, 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 등을 비롯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배정전 원장과 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력을 스마트 선박의 공동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군산대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스마트 선박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과 기술 지원 △지역 산업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술 및 기술 교류 활성화와 △공동 연구 및 인적 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비롯해 양 기관은 스마트 선박 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업무협약과 더불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초등돌봄 도시락
방학 중 무상 공급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시가 방학 중에도 끼니 걱정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29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1,100여 명에게 '초등돌봄 건강 도시락'을 무상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익산교육지원청,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식당,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익산시는 사업을 총괄하고 △익산교육지원청 '대상 학교 선정'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및 도시락 배송' △청년식당 '도시락 제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구성 및 위생 점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쪽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